



특집 | 작은 도서관 운동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작은 도서관 운동이 필요하다.

김영석*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동네 혹은 마을 도서관건립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일년을 계획하거든 곡식을 심고, 십년을 계획하거든 나무를 심고, 백년을 계획하거든 사람을 교육시켜라’라는 공자의 명언은 서양에서도 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특히 이 문구는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더 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모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에 없던 도서관건립운동, 특히 어린이도서관운동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이제서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은 어찌면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도서관서비스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공공도서관의 더딘 발전에 그 원인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가장 주된 서비스 대상은 어린이와 주부 그리고 노인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최근의 어린이도서관운동은 방송국, 지방자치단체, 대학,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그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 어린이도서관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에스콰이어 문화재단에서는 1990년 이후 국내외에 22개의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또 많은 시민과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설립 운영해 왔다.

* 영국 셰필드대학 문헌정보학 박사과정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 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는 이러한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다. 모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 담당자는 한겨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유럽의 경우 어린이도서관, 또는 어린이용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인구 1만명당 1개 꼴로 있다. 한국의 중심이라는 서울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단 한 곳 뿐이다.' (인터넷 한겨레, 사회, 2003.1.13.) 더 나아가 모 신문사의 기자는 '어린이전용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기사에서 (2003. 2.28) '순천시 해룡면 상삼지구에 들어설 기적의 도서관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선진국에서는 자치지역마다 설립돼 있다.'고 말했다. 또 모 국회의원은 지방일간지에 기고한 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인천일보, 2003.3.28)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1979년 5월 4일 세계 어린이의 해를 기념하여 서울시가 인왕산 자락 사직공원안에 설립한 어린이 전용 공립도서관이 유일하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조그만 도시에조차 어린이도서관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현실과 다소 다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선진국에서 단독 건물에서 (만 14세이하) 어린이에게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재미있게도 이웃나라 일본에만 큰 규모의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일본 어린이도서관을 다녀와서' 라는 글을(동화읽는 어른, 1998. 10호) 쓴 윤영희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에는 어린이만을 위한 전문도서관이 있다기 보다 거의

모든 도서관에 어린이실을 함께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가 성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없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에서도 밝혔듯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앞서 있고 관심도 많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일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이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작은 동네도서관운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작은 동네도서관이 문을 연다면 그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어린이가 될 것이다.

일반 공공도서관건립 주장과 관련해서 '공공도서관은 자칫 잘못하면 건물만 들어서고 시설은 독서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도서관은 다르다'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동네도서관'은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 동네도서관은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 현재 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동네 어린이도서관을 연상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도서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엔 한 지역 자치단체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branch or community library)이 본인이 주장하는 '작은동네도서관' 규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도서관이 인구 1만 명당 1개 꼴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작은동네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본인이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많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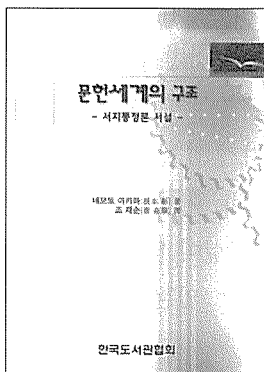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이 '작은 동네(공공)도서관' 건립운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도서관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전국의 수십 개의

도시에 커다란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짓기 보다는 그 비용으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작은동네(공공)도서관'을 한 도시에 여러 곳, 전국의 수백 곳에 짓는다면 우리는 단숨에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문화를 갖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은 어떤 문제가 처음에는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정답을 알고나면 그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다. '선진국의 도서관 문화' 어쩌면 '콜럼버스의 달걀'이 아닐런지. 즉 쉽게 따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려하는 '선진국형 도서관 이용 (혹은 독서) 문화'는 도서관을 먼저 지어놓고 그 후에 기대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신 간

문헌세계의 구조
-서지통정론 서설-

네모토 아키라 저
조재순 역



신국판/323쪽
ISBN 89-7678-063-9
정가 13,000원
회원보급가 10,400원

목차

- 지식의 조직화의 백과사전
- 지식을 획득하는 힘
- 작품과 테스트
- 역사
- IIB의 국제서지 편찬활동
- 서지통정 개념의 성립과 배경
- 일본의 시스템
- 미군 점령기의 서지통정 정책
- 국가서지와 출판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